

입장문

안녕하세요. 인성개발입니다.

긴 글로 찾아 뵈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글은 공론화 글도 아니고 성명문도 아닌 그냥 저의 입장문입니다.

저는 17년 후배의 권유를 받아 레식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저는 제 동아리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하던 소소한 켄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인생활을 하고 싶었던 저는 제 트위터 본계와 텀블러를 통하여 소소하게 혼덕질을 하던 와중 2년만에 장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레식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사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제 타임라인 안에서 생활 하고 싶었기에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장르계를 살리고 처음 6개월 동안은 구독계를 만들어 트친소가 올라오길 기다리며 한 명씩 트친을 만들었고 같이 소소하게 게임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후 후배는 군대를 전역 하여 돌아왔고 제 탐라에 자주 언급되는 '노바'와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제가 구인 파티를 올릴 때마다 혼성팻을 말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탐라에서 남성 플레이어를 싫어하시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여미새, 시종이 되어버린 저의 동기와 후배에게 미안해서 언급합니다.

저에게 21년 02월 07일부터 어제(21일)까지 트위터는 PTSD를 유발시키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19년 트위터 레식판에 처음 들어 온 저는 주기적으로 제 타임라인 안에서 탐라 대화로 누군가를 싸불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장르 서치도 거의 안하는 사람이라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큰 관심이 없어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20년 하반기에 트친의 소개로 대군만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레식판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고 무슨일을 하였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굳이 과거를 알 필요가 있는가 생각했던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20년 12월 초 표면적으로 대군만님의 일상계가 불좌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뒷계에서 대군만님의 썰계 또한 불좌도는 것을 보았고 그 불좌로 인하여 제 썰계 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군만님이 트위터 계정이 만들게 된 원인은 저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군만님이 저에게 좋아할만한 썰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고 그때쯤 실수로 야썰을 가족에게 들킨 이후 자동 로그인인 되어 있는 디스코드로 썰을 푸는 것을 무서워했던 저는 트위터로 썰을 풀자고 권유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던 대군만님이 계정을 만들어 왔다고 저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후 대군만님은 트위터에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셔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것에 대해서 권유를 드렸고 이후 정신과 진료만으로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은것 같아 성인심리상담을 운영하는 대전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알아보아 연계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후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21년 02월 07일 오전7시 30여분경 저는 대구 가는 첫차를 타기 위하여 종합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와중 제 트친과 트위터 유저들이 명란젓 서버와 대군만 그리고 미우를 욕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휘말리기 싫었던 저는 “내가 조용히 하면 넘어갈 문제다”고 생각하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오후에 잠이 깬 저는 해당 서버가 난리 난 것을 발견 하였고 더는 숨길 수 없었던 문제가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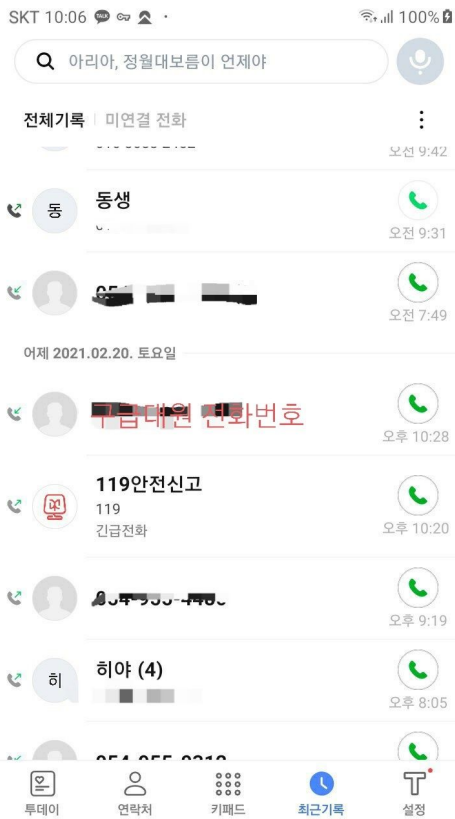
21년 02월 20일 늦은 저녁 저는 외출을 끝내고 집에서 포타 정리를 하기 위해 포스타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대군만님의 자살 암시 글을 발견 하게 되었고 포스타입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여 의식을 파악하였습니다. 20여분의 설득 끝에 대학병원에 가서 위 세척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 할 때까지 전화를 끊으시면 안된다고 여러 번 당부 하였고 대군만님이 알겠다며 병원에 가겠다는 말과 함께 위치하신곳을 지도로 검색하여 친오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대구 119 상황센터에서 대전 119 상황 센터로 연결 해주어서 대군만님이 있는 곳으로 앰بول런스가 도착한 것을 확인 한 다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위기 개입이 필요함을 느꼈고 늦은 시간 대덕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쭙보았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후 수액을 맞고 있다는 대군만님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알려드려 월요일에 방문 해볼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내일(21일)에 대전에 갈 테니 저와 대화 후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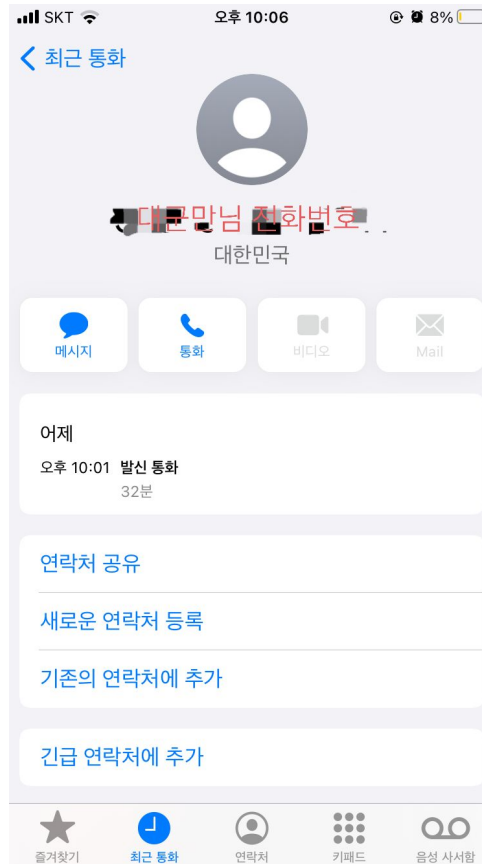
일요일 오전 저는 대전에 도착하여 대군만님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글을 쓰고 있던 시점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 이 글이 언제 올라갈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배워왔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속의 환경은 제가 쉽게 이해 할 수 없었던 것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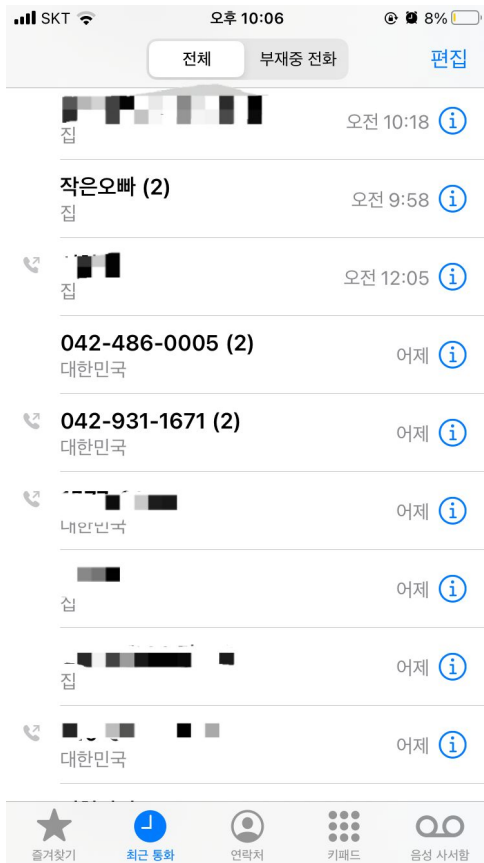
저와 같이 교류하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리며 저는 더이상 이 계정으로 돌아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여름 계평 예정이었지만 조금 빨라 졌다고 생각하고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전화번호)



(대군만님 전화번호)



(대덕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야간당직자와 통화 기록)